폭넓음과 치밀함을 겸비한 內科學界의 先導者

金 東 益 박사
〈1900～1987〉

青嵐 金東益선생은 1924년 京城医學專門학교 (서울大医大전신)를 졸업하고 바로 이 학교 병원 내과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병원근무의 노고속에서도 학문연구를 계속하여 1932년에 일본 慶應大에서 의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35년에 金東益内科病院을 개원하여 해방이 될때까지 10여년간 운영하셨다. 해방이 되자 성업중이던 개인병원을 떠나 경의전의 요청에 따라 내과교수로 취임(1945. 9)하였다.

1946년 서울대학교가 창립되면서 내과학 특히 소화기병학을 담당하면서 후학양성과 진료에도 정성을 다하셨다.

해방직후의 혼란기임에도 불구하고 선생께서 주임교수로 이끌어 나가기 시작하면서 내과교실은 정돈되고 차츰 궤도에 올라 연구업적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1949년 서울대의대 병원장에 취임하여 의대와 병원발전에 진력하고 있던차에 민족의 비극인 6·25동란이 발발하였다. 이때 선생은 결연히 軍門에 뛰어들어 육군중령으로 임관 1950년 12월 부산에서 제36육군병원을 창설하면서 원장으로 보임되셨다.

5년간 군에 헌신하시다가 휴전뒤 대학에 다시 돌아와 대학병원장(1956), 대한내과학회장(1958), 서울대학교 대학원장(1961), 대한소화기병학회장(1961)등을 지내면서 대학과 의학계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셨다.

정년퇴임 후에는 동국대학교총장으로 추대되기도 하여 선생의 해박한 학식과 덕망은 의학계는 물론 사회에서도 높이 추앙받았던 것이다.

선생은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행동반경이 넓으셔서 고위층 명사는 물론 春秋墨客들과도 사귀셨다. 문교부 교수자격심사위원, 대한병원협회장, 한양로타리클럽회장, 불교종립학교연합회장 등을 지내면서 사회활동에도 빛나는 자취를 남겨 놓으셨다.

돌이켜 보건데, 선생의 주임교수시절 제2내과에서의 医局生活은 면학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한집안 식구처럼 두터운 인정과 낭만이 가득찬 분위기 속에서 지낸 희망과 행복스러운 생활이었다고 생각된다.

기회있을 때마다 우리들을 불러 즐겁게 해주셨고, 사모님 金仁洙여사의 격조높은 가야금선율은 우리들의 흥을 더욱 북돋아 주시기도 하였다. 酒興이 고조되면 김판관(金東益)의 노래, 송대포(宋浩星)의 노래, 곰선생(金應振)의 노래등 합창이 이어져 분위기는 그야말로 절정에 달하곤 하였다.

선생은 주거저택마다 특색이 있다. 丘陵을 뒷뜰에 가진 성북동집, 잔디밭과 우거진 숲의 수유동집, 뒷산의 진달래와 앞의 田園風景의 수원 七宝精舎등이 모두 그랬다.

이처럼 선생은 옛 선비들의 멋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아시고 유유히 自適하는 멋쟁이 이면서도 매우 부지런하고 가정적이셨다.

선생은 찬찬하고 치밀한 성격의 소유자인가 하면, 불같은 정의감이 투철하여 일찌기 京医專학창시절에 3·1운동에 뛰어들었다가 퇴학처분과 獄苦를 치루기도 하셨다.

모쪼록 鶴壽亀齡하시어 이나라의 큰별로 남아계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선생은 1900년에 출생하시어 1987년 9월 87세를 일기로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 의학계와 문하생들은 그 큰별을 잃고 말았다.

金 應 振
〈乙支病院 医務院長〉